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한국곰두리봉사회 봉사자들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 수구)은 26일 사단법인 한국곰두리봉

사회 한마음 전국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국대회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곰두리봉사회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고 전국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중앙 및 전국 지회 임원, 회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이웃 곁을 가장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한국곰두리봉사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자 진정한 버팀목"이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발

걸음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국곰두리봉사회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인천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곰두리봉사회는 장애인, 저소득층,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의료·복지 지원, 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민간 봉사단체로, 전국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심하린 기자

강남구의회,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참석



강남구의회(이호규 의장)는 25일 대치2동복합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이정성 기자

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대규모개발사업 설명(현대자동차 GBC 건립 사업·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코엑스(한국종합무역센터) 부지 개발 사업·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의견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복진경 부의장·이항숙 의원·황영각 의원·김경곤 의원·우종혁 의원이 참석했다.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본격화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25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난해 출범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수산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어촌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수산어촌미래연구원 류

성근 원장과 박준모 박사, 이창수 박사가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수산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신명식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회장은 "청년수산인의 대외 활동을 위한 교류와 홍보 행사,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정책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성행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부회장은 "경남도의 어촌상생정책처럼 기업과 청년수산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진형 해양수산 대표는 "산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유통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혜훈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보령지회장은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판로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해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존 청년정책을 참고해 청년수산인을 위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수산인 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며 "행정 차원에서 청년수산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의 핵심은 청년수산인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연합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 수산물의 품목별 차별성을 살려 청년수산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금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2일 개최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 제260회 임시회가 오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금천구의회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이정성 기자

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조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다.

제260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를 열고,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심사 안건들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금천구의회는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통해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진명의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정책 방향 점검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책 연구용역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시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분당 서현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정책 제안으로 시작하여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진명 의원은 분당 신도시의 특성과 관련해 "분당은 1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송민수 기자

지역으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수요가 큰 만큼, 공공의 역할과 균형 있는 정책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서현지역은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이미 밀집된 지역으로 향후 재건축 추진 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과부하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대책이 선제적으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주택 재건축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도시 기능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시 재구조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분당 서현지역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이해관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



하남시의회의(의장 금광연)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당초 예산 대비 70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 총 6건, 56억 8,957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소송배상금 △해

외 시장 개척단 출장 여비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 등이다. 다만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에 각각 28억 원씩 편성된 구조로 인해, 예산서상으로는 합산된 56억 원으로 삭감 처리됐다.

아울러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을 맡은 강성삼 의원과 박진희 의원을 비롯해 재무·회계 실무에 밝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전년도 하남시의 세입·세출, 기금, 공유재산 등 재정 집행 전반이 관련 법규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였는지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참석



화성특례시의회의(의장 배정수)는 26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지 현장의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사회복지사와 가족 등 약 1,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고 복지 현장의 자긍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는 사회복지사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사기 진작과 연대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이날 '시작의 물결(Wave)'을 주제로 기념식과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며 경기도 복지 공동체의 결속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돌봄이 이웃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온기를 키우며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며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실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고와 더욱 공감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더 크게 이어지길 바란다"며 "치유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힘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3.24~3.30 (7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 예정)

